

한국 성역할 검사 (KSRI)

정진경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한국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기초로 하여 제작된 성역할 검사가 없는 것이 지금까지 이 분야의 연구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밝혀내어 그를 기초로 양성성 이론에 입각한 한국 성역할 검사(KSRI)를 제작하였다. 둔항 선정을 위한 예비조사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포함하는 성격특성 452 항목이 한국사회에서 남녀에게 각각 바람직한 정도를 응답자 188명이 평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Bem(1974)이 고안한 방식에 따라 남성성, 여성성, 긍정성 척도에 사용할 항목을 각각 20개씩 선정하였다. 제작된 검사를 새로운 응답자 140명에게 실시하여 신뢰도를 내어 본 결과 세 척도에서 .75에서 .91에 이르는 높은 신뢰도가 산출되었고, 자아 존중감을 의부준거로 하여 타당도를 내어 본 결과 여성성에서 다소 낮기는 하나 양성성 이론에 대체로 부합하는 양상을 보였다. 앞으로 표준 및 타당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성역할과 관련된 연구에서 사용되어 온 번역판 검사나 양성성 이론에 부합하지 않는 여타의 성역할 척도들에 비하여 이 검사가 여러모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심리학에서는 성역할과 관련된 연구가 급증하여 단기간에 전반적인 연구의 체계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이 시기에 성역할 연구를 발전시킨 학자들은 그 이전의 학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이 문제를 연구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양성적(兩性的) 시각이다(정진경, 1987; Cook, 1985; Kaplan and Sedney, 1980). 이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성별에 관계없이 여성적인 특성과 남성적인 특성을 공유할 수 있다. 남녀는 뚜렷이 다른 성격을 지녀서 여성은 여성성만을 남성은 남성성만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던 기존의 시각과는 달리, 양성적 시각은 여성성이나 남성성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형성된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며 실제로는 양성성을 지닌 사람이 여러모로 심리적인 장점을 갖는다는 인식

에서 출발하였다. 이 시각에서는 양성성을 바람직한 남성적 특성과 바람직한 여성적 특성이 한 사람안에 공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래서 더욱 바람직하고 적응적인 성격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새로운 시각은 기존의 연구들이 지녔던 성차별적인 전제들을 밝혀내고 앞으로의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성차별이 빚어내는 여러 사회문제의 해결에도 적용되면서 큰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이 분야의 심리학적 연구가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는데 큰 공헌을 한 것이 Bem(1974)을 위시한 여러 학자들이 검사개발에 기울인 노력이었다. 이들은 성역할 분야의 객관적인 연구를 위하여 표준화된 성역할 측정검사를 다양하게 개발함으로써, 성역할의 구조를 밝혀내고 성역할 특성과 발달, 인지, 사회, 임상 등의 여러 심리학 분야의 주요 개념들

과 연관성을 경험적인 자료의 토대 위에서 체계적으로 밝혀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현재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양성성 검사로는 Bem 성역할검사(BSRI: Bem, 1974), 성격특성질문지(PAQ: Spence, Helmreich and Stapp, 1974), PRF ANDRO 척도(Berzins, Welling and Wetter, 1978), 형용사 체크 리스트(ACL: Heilbrun, 1976) 중의 양성성 척도 등이 있다. 이러한 검사들의 목적은 양성적인 사람과 남성적 혹은 여성적으로 성전형화되어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것이다.

양성성의 개념이 심리학에 소개되기 이전에도 남성성과 여성성을 측정하는 검사들은 있었다. 그 예로는 Strong 직업흥미검사(1943)의 남성성-여성성 척도, MMPI(Hathaway and Mckinley, 1943)의 남성성-여성성 척도, 그리고 Gough의 CPI(1964)의 여성성 척도 등을 들 수 있다. 이 검사들은 오랫동안 남성성-여성성의 측정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양성적인 시각에 입각하여 개발된 새로운 성역할 검사들은 이러한 기존의 검사들과는 두가지 측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Kaplan and Sedney, 1980).

첫번째의 차이점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기존의 검사들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고, 하나의 연속선의 양극단에 놓았다. 이 방법에서는 한 개인의 여성성 점수와 남성성 점수는 반비례해서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하나는 내려가게 되어 있다. 이에 비해서 양성성을 측정하는 새로운 검사들은 이러한 양극단의 개념을 거부하고, 여성성과 남성성을 상호 독립적인 요인으로 보았다. 이러한 척도에서는 응답자가 다양한 특성을 보일 수 있게 된다. 즉, 두가지 특성이다 높을 수도 있고, 다 낮을 수도 있고,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을 수도 있는 것이다.

두번째의 차이점은 여성성과 남성성 척도에 포함되는 문항의 선정기준에 대한 것이다. 기존의 검사들이 사용한 기준은 남성과 여성이 상이한 반응을 보인 문항을 선정하는 것이었다. 즉 남성성 문항은 전형적인 남성의 반응, 여성성 문항은 전형적인 여성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에 비하여 양성성 검사들은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고정관념을 문항선정의 기준으로 삼았다. 다시 말하자면 여성성 문항의 내용들은 여성들에게 바람직한 특성이고 여성들이 많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

라고 우리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양성성 검사들은 여성과 남성의 특성에 대한 추상적이고 고정관념적인 문항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적 구성개념의 차이와 구체적인 검사 개발과정의 차이로 인하여 기존의 성격검사들과 새로운 양성성 검사들은 같은 응답자들에게 실시했을 때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의 성역할에 관한 연구에서는 거의가 1970년대 이후에 개발된 새로운 양성성 검사를 사용하고 있다.

양성성 검사들 중에서도 이 분야의 연구가 발전되기 시작한 초기에 개발되어 가장 널리 사용되어 온 것이 Bem(1974)이 개발한 성역할검사(BSRI)이다. 이 검사는 양성성 이론에 입각하여 여성과 남성성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고정관념을 기초로한 문항들로 구성되었고 여성성과 남성성을 구별하여 독립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심리학, 교육학,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성역할에 대한 연구가 최근들어 급증하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성역할특성의 측정에 BSRI를 번역하여 사용해 왔다. BSRI의 60개 문항전부를 번역하여 사용한 경우도 있고, 때로는 예비검사를 거쳐 우리나라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문항들을 몇개 삭제하고 남은 문항들만을 실시한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검사가 없는 상황에서는 외국의 것을 번역하여 사용할 수 밖에 없으나, 이는 이론적으로도 방법론적으로도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몇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들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번역하는 과정에서 문항에 따라서는 적합한 직역이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self-sufficient" 같은 것은 직역이 마땅치 않아 그 뜻을 풀어서 쓰는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번역자가 자의적으로 내용을 변경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또한 어떤 특성의 경우는 통용되는 직역이 있더라도 그 뜻이 문화적으로 매우 달라서 실질적으로는 문항내용을 변경시키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ggressive" 같은 단어의 경우에 "공격적인"으로 번역되는 것이 통례인데, 미국문화에서는 이 단어가 타인에 대하여 공격적이라는 의미보다는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적극적이라는 좀 더 긍정적인 의미로 통용되기 때문에 이를 "공격적인"으로 직역했을 때는 문항 내용을 바꾸는 것이 되기 쉽다. 이러한 번역의 오류에 대한 문제는 비교문화

연구의 방법론 논의에서 이미 거듭 지적되어 왔다 (Brislin, 1980).

둘째, 양성성 검사는 그 검사가 사용된 사회의 남녀에 대한 고정 관념을 기초로 작성되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에서 작성된 검사는 그 사회의 전형적인 성역할 고정 관념을 기초자료로 사용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우리 문화에는 적합하지 않은 문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개인주의적 (individualistic)”, “경쟁적 (competitive)” 등은 미국의 경우 남성적 특성으로 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성적 특성으로 나타났고, “충성스러운 (loyal)”, “이해적인 (understanding)” 등은 미국의 경우 여성적인 특성이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적 특성으로 나타났다(박선영, 1984). 이러한 문항들을 그대로 포함시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특성이 여성성 문항으로 사용되어 여성성 점수의 계산에 포함되는 등 구성개념의 혼란이 초래되고 부정확한 결과를 낳게 된다.

셋째, 원 검사에 포함된 문항 중 우리 사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몇 개의 문항을 삭제하고 문항의 수를 줄여서 사용한 경우도 있는데, 표준화된 검사들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로서 원 검사를 사용한 다른 연구들에서 얻은 결과들과의 비교, 분석이 어려워진다. 또한 이는 미국의 고정관념 중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삭제할 뿐,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고정관념들을 검사에 포함 시키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의 성역할 고정 관념에 대한 기초자료의 수집에서부터 시작하여 검사개발의 전 과정을 거쳐서 표준화된 검사를 제작하여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기초로하여 개발된 한국형 성역할 검사(김영희, 1988)가 발표된 바 있으나, 이 검사는 BSRI의 개발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 개발 되었고 이 검사를 사용한 연구결과의 해석에도 양성성 이론의 시각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SRI와는 달리 문항선정과정에서 여성성 척도에 부정적 특성을 나타내는 척도를 절반 가량 포함시킴으로써 (“쉽게 운다”, “의존적이다”, “쉽게 영향을 받는다”, “변덕스럽다”, “질투심을 갖는다”, “말이 많다”, “잔소

리가 심하다”), 양성성의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남성성 점수가 높은 것은 바람직한 남성적 특징이 많음을 나타내나 여성성 점수가 높은 것은 바람직한 여성적 특성이 많은 것으로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양성성의 측정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이 검사에 의하면 남성성 점수가 높은 것이 여성성 점수가 높은 것보다 문항 특성상 더 바람직한 것이 될 수 밖에 없어서, 성역할 특성과 다른 개념들과의 관련을 연구할 때(예: 자아 개념, 적응 등) 여성성이 열등한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리라는 것을 거의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난점을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양성성 이론에 입각하여 표준화된 한국 성역할 검사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국사회의 전형적인 성역할 고정관념들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 밝혀내고 이를 기초로 우리에게 적합한 표준화된 성역할 검사를 개발하여 검사요강과 함께 보급함으로써, 앞으로 축적되는 연구결과들을 체계화 이론화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한국 성역할 검사(KSRI)의 작성 및 검증

한국 성역할 검사(Korean Sex Role Inventory : KSRI)는 BSRI의 개발과정을 모델로 하여 같은 방법으로 개발하였다. 따라서 KSRI는 BSRI와 같은 동일한 체제 및 문항수를 가지고 있고 채점방법도 동일하여 상호간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

1. 문항선정

성역할 관련분야의 연구에서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한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일이다.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여성과 남성의 성격특성에 대한 고정관념뿐 아니라 능력과 적성에 대한 것과 그에 따른 실생활에서의 역할과 행동특성에 대한 것까지 넓은 분야에 걸쳐 있으나, 이 연구는 성역할 성격특성을 측정하는 검사의 작성이 목적이므로 여기에서는 문항선정을 위한 예비조사에 쓰일 성격특성항목들을 다음과 같은 3 가지의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첫째, 방송통신대학에 재학하면서 여름방학 동안에 충북대학교에서 하는 출석수업에 참석한 학생들 89명

(남자 45명, 여자 44명)을 대상으로 우리사회의 성역할 고정 관념을 밝혀내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대상자들에게 “남자와 여자의 성격적, 사회적 특성이라고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간주되는 것들을 생각하는데 까지 적어 주십시오”라고 요청 하였고 남녀 대상자 모두가 남자와 여자에 대한 문항에 모두 대답하였다. 비슷한 내용의 응답끼리는 묶어서(예 : 끈기가 있다, 끈기가 대단하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끈질기다→끈기가 있다) 빈도를 내어 높은 빈도로 나타난 항목들을 남녀별로 30 개씩 정리하여 총 60개 항목을 작성하였다.

둘째는 Bem 성역할 검사를 연구자가 우리말로 옮겨서 만든 항목들로서 역시 60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포함시킨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 첫째는 이 문항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선정되는 문항이 얼마나 있는가를 알아봄으로써 성역할에 대한 비교문화적 분석을 해보려는 것이고, 둘째는 앞의 조사의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성격특성들을 추가하여 자료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셋째는 김영채(1984)가 성격특성 형용사의 심상가와 호오가를 측정하는 연구를 위하여 선정한 400개의 항목들을 설문지에 포함시켰다. 이는 우리말에서 성격특성을 기술하는 형용사들의 포괄적인 리스트로서, 역시 앞의 조사의 자료를 보완함과 동시에 성별과 연결되지 않은 긍정성을 측정하는 항목들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첨부하였다.

위의 세가지 자료를 모아서 그 중 중복되는 것을 피하여 열거하니 452항목이 되었다. 설문지는 “한국 사회에서 남성(또는 여성)이 다음과 특징을 가지는 것은 얼

마나 바람직한 일입니까?”라는 물음에 대하여 452개의 특성들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응답은 각각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다”(1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7점)까지로 되어 있는 7점척도를 사용하여 하게 되어 있다.

문항선정을 위한 이 예비조사의 조사대상자들은 충북대학교 학생 188명으로서(남자 99명, 여자 89명) 이들은 본인의 성별과는 관계없이 남성 혹은 여성중의 하나에 대한 설문지에 대답하였다.

문항선정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남성성 문항은 남녀 응답자가 모두 여성에게 보다는 남성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긍정적 문항들이고, 여성성 문항은 남녀 응답자가 모두 남성에게 보다는 여성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긍정적 문항들이다. 성별과 관련지어서는 중성적이고 자신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으로 표현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긍정성 문항은 남녀 응답자가 모두 어느한 성에게 더 바람직한 특성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또한 남녀 응답자가 그 특성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정도에 대하여 비슷한 판단들을 한 문항들이다. 이중 반은 바람직한 특성, 나머지 반은 바람직하지 못한 특성들로 구성한다.

이 원칙에 따라 문항을 선정하기 위하여 남녀별로 응답자를 나누어서 각각의 경우마다 남성과 여성에게 일정한 특성이 바람직한 정도의 판단을 비교해 보았다.

T-검증 결과 중 일부를 소개하면 <표 1>과 같다.

위의 표에서 “믿음직스럽다”는 남녀 응답자 모두가 여성에게 보다는 남성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여 ($p < .05$) 남성성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선정되었고, “섬세하다”는 남녀 응답자 모두가 남성에게 보다는 여성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여 ($p < .05$) 여성성을 나타

<표 1> 각 성격특성이 남녀에게 바람직한 정도에 대한 평균 및 T-검증 결과의 예

	남성응답자			여성응답자		
	남 성	여 성	유의미도	남 성	여 성	유의미도
믿음적스럽다	6.34	4.96	**	6.49	5.73	**
섬세하다	4.27	5.45	**	4.00	5.35	**
성실하다	6.58	6.53		6.63	6.65	
소박하다	5.25	5.92	**	5.33	5.20	
점잖다	4.88	4.84		5.02	4.50	*

* $P < .05$ 수준에서 차이가 유의미함.

** $P < .01$ 수준에서 차이가 유의미함.

내는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소박하다”와 “절잖다”의 경우는 남녀 응답자 중에서 한쪽만이 남성 혹은 여성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여 문항 선정에서 제외되었다. “성실하다”는 남녀 응답자가 모두 어느 한 성에게 더 바람직한 특성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또한 남녀 응답자가 그 특성이 일반적으로 매우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슷한 판단을 내렸으므로, 중성적인 문항으로서 긍정성 문항에 선정되었다.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는 문항을 내용상의 중복을 피하여 선정한 결과 검사에 필요한 남성성 문항 20개와 여성성 문항 20개에 수가 약간 못미쳐서, 유의도 수준 $p < .10$ 에서 몇 문항을 더 선정하였다.

긍정성의 경우에는 문항선정 원칙에 맞는 문항들을 열거한 뒤, BSRI의 작성과정에서처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특성과 바람직하지 못한 특성을 각각 10 개씩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60문항으로 이루어진 한국 성역할 검사(KSRI)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참고로 KSRI의 문항들과 미국에서 만든 BSRI의 문항들을 비교해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적은 편이다. 남성성의 경우는 20개중 9개, 여성성의 경우는 20개 중 6개, 긍정성의 경우는 20개중 3개로 총 60문항중 18문항이 겹쳐서 1/3이 채 못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를 보면, 다른 문화의 고정관념들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검사를 번역해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항들을 선정한 후, 남녀 응답자별로 남성성, 여성성, 긍정성 문항들의 평균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결과를 보면, 남녀 응답자 모두에게 있어서 남성성 문항은 남성에게 여성성 문항은 여성에게 더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고($p < .01$), 성별과 관련지어서는 중성적

<표 2> KSRI의 남성성, 여성성, 긍정성 문항들

남 성 성	여 성 성	긍 정 성
1. 믿음직스럽다	2. 설세하다	3. 융통성이 있다
4. 과묵하다	5. 어질다	6. 성숙하지 못하다(-)
7. 남성적이다	8. 친절하다	9. 생각이 깊다
10. 강하다	11. 온화하다	12. 염세적이다(-)
13. 자신감이 있다	14. 부드럽다	15. 이해심이 많다
16. 털털하다	17. 상냥하다	18. 응고집이다(-)
19. 박력이 있다	20. 감정이 풍부하다	21. 성실하다
22. 독립적이다	23. 깔끔하다	24. 심술궂다(-)
25. 씩씩하다	26. 따뜻하다	27. 부지런하다
28. 야심적이다	29. 인정이 많다	30. 부주의하다(-)
31. 근엄하다	32. 다정다감하다	33. 솔직하다
34. 의욕적이다	35. 차분하다	36. 독선적이다(-)
37. 자신의 신념을 주장한다	38. 알뜰하다	39. 결손하다
40. 의지력이 강하다	41. 유순하다	42. 불안정하다(-)
43. 대범하다	44. 민감하다	43. 진지하다
46. 집념이 강하다	47. 순종적이다	48. 신경이 날카롭다(-)
49. 의리가 있다	50. 꼼꼼하다	51. 분명하다
52. 지도력이 있다	53. 얌전하다	54. 화를 잘 낸다(-)
55. 결단력이 있다	56. 여성적이다	57. 활발하다
58. 모험적이다	59. 씩씩하다	60. 불건전하다(-)

문항번호는 실제 검사시에 나타나는 순서대로 되어 있다.

긍정성 문항 중 (-)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부정적인 특성들로서, 결수를 계산할 때에는 반대로 값을 전환한다.

〈표 3〉 KSRI의 남성성, 여성성, 긍정성 문항들이 남녀에게 바람직한 정도

	남성 응답자			여성 응답자		
	남성성문항	여성성문항	긍정성문항	남성성문항	여성성문항	긍정성문항
남성에게	5.75	4.84	6.05	5.76	4.75	6.27
여성에게	4.48	5.89	6.01	5.23	5.54	6.21
차 이	1.27	-1.05	0.04	0.53	-0.79	0.06
t	8.39**	-9.51**	.36	4.53**	-6.87**	.57

** P<.01

인 긍정성 문항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은 문항선정의 기준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로써, 남성성 척도, 여성성 척도, 중성적인 긍정성 척도의 안면 타당도를 보여준다.

2. 채점방법

KSRI는 앞서서도 밝힌 바와 같이 남성성, 여성성, 긍정성을 나타내는 60개의 성격 특성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고, 검사를 받는 사람은 이 각각의 문항들이 얼마나 자신을 잘 표현하는지를 생각하여 보고, 7점 척도에 답을 하게 되어 있다("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7점)까지).

응답결과를 처리하면, 각 응답자에게 남성성 점수, 여성성 점수, 긍정성 점수의 세가지 점수를 내게된다. 남성성 점수는 20개의 남성성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이고, 여성성 점수는 20개의 여성성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이다.

이 두 점수는 논리적으로 상호 독립적이며, 계산과정에서도 독립적으로 산출된다. 긍정성 점수는 10개의 부정적 특성 문항에 대한 응답의 점수를 반대로 전환하여 (1은 7로, 2는 6으로 등) 긍정적 특성 문항과 합하여 20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긍정적인 특성을 높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Bem(1974)의 초기연구에서는 이 세가지 점수이의. 에도 한 개인의 남성성과 여성성의 상대적인 정도를 나타내는 양성성 점수를 계산하였다. 이 양성성 점수는 남성성과 여성성 점수간의 t-점수로서 계산되는데, 이 점수의 절대값이 높을수록, 즉 두 점수간의 차이가 클

수록 성전형화된 것(혹은 반대의 성의 특징을 드물게 가진 것)으로 보고, 이 점수가 0에 가까울수록 양성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양성성 점수의 계산 방법은 몇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이 후속연구들에서 밝혀져서(Bem, 1977; Spence and Helmreich, 1979), 현재는 이 방법이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방법이 남성성, 여성성이 모두 높은 사람과 이 두 가지가 모두 낮은 사람들을 구별해 내지 못한다는 점인데, 이 두 집단은 몇가지 다른 종속변인과 연관지어 분석해 본 결과 성격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서, Bem (1977) 자신도 이 방법을 철회하고 중앙치 분리법(Median Split Procedure)을 채택하였다. 중앙치분리법은 Spence, Helmreich 와 Stapp(1975)이 고안한 것인데, 이는 전체 응답자 집단의 남성성, 여성성 점수들의 중앙치를 준거로 하여 각 개인의 남성성, 여성성 점수가 이보다 높은가 낮은가를 가려서 응답자들을 네 집단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4〉와 같다.

〈표 4〉 중앙치 분리법에 따른 응답자의 성역할 특성분류

		여성성 점수	
		중앙치 이상	중앙치 이하
남성성 점수	중앙치 이상	양 성 적	남 성 적
	중앙치 이하	여 성 적	미 분 화

이와 같은 증상치 분리법은 대상집단에 따라 증상치가 달라지는 점과 증상치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사람은 분류가 애매한점 등 몇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는 있으나, 최근에는 t-점수에 비해서 장점을 인정받아 널리 쓰이고 있으므로 본 검사에서도 이 방법을 채택하기로 한다. (양성성의 채점에 대한 이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는 Cook(1985)의 책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전체 조사대상자들을 성역할 유형에 따라서 네 집단으로 분류하여 본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 응답자의 성역할 유형별 분류

	남성	여성	합계
양 성 적	33	7	40
남 성 적	17	14	31
여 성 적	9	22	31
미 분 화	16	22	38
합 계	75	65	140

남성 응답자는 양성적과 남성적 유형으로 많이 분류되고 여성 응답자는 여성적과 미분화 유형으로 많이 분류되었는데 이는 남성 응답자들이 남성성과 여성성 점수에서 여성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의 직접적 결과이다(뒤의 표 7 참조). 앞으로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계속 밝혀진다면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는 성역할 유형분류를 남녀별로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신뢰도, 타당도 및 규준 (Psychometric Analyses)

위의 예비조사의 결과로 얻어진 60문항으로 작성한 한국 성역할 검사의 신뢰도, 타당도 및 규준을 산출하기 위하여, 이 검사를 충북대학교 학생 140명에게(남자 75명, 여자 65명) 실시하였다.

신뢰도

각각 20문항씩으로 구성된 남성성, 여성성, 긍정성 점수에 대하여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내어 본 결과,

Cronbach의 α 가 남성성에서 .91, 여성성에서 .84, 긍정성에서 .75로 산출되었다. (반분 신뢰도도 이와 비슷하게 각각 .91, .79, .78 로 산출되었다.) Wilson과 Cook(1984)은 다양한 양성성 검사들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조사해 본 결과 .62에서 .88의 범위에 들어가며 대체로 남성성 척도가 여성성 척도보다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산출된 KSRI의 신뢰도는 남성성, 여성성 모두 높은 편이며, 긍정성의 경우도 대체로 만족할만한 수준은 된다고 할 수 있다.

타당도

남녀 응답자 모두가 남성 혹은 여성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문항들만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KSRI는 논리적으로 안면타당도가 성립된다(표 3참조).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해 보기 위한 적절한 외부준거 변인을 찾기 위하여 자아개념검사(정원식, 1965)와 자아실현검사(김재은과 이광자, 1985)의 몇 가지 하위 척도와 KSRI의 남성성, 여성성, 긍정성과의 관련을 알아 보았다. (MMPI 나 CPI 등의 기존의 성격검사의 남성성-여성성 척도들은 앞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그 기초가 되는 성격 이론이나 검사제작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준거변인으로 사용하기에 적절치 못하다.) 양성성 이론에 의하면 양성적인 성격특징을 지닌 사람은 여성적인 행동과 남성적인 행동을 모두 함으로써 더 다양한 행동을 수행해 낼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상황의 요구에 따라 유연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따라서 그는 환경에 건강하게 적응하며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이론에 비추어 볼 때 양성성 이론에 부합하는 적절한 KSRI의 외부 준거 변인은 남성성, 여성성과 모두 높은 상관관계를 가져야 한다.

상관계수를 내어 본 결과 자아개념검사에서 전반적 자아존중감을 나타내는 '성격적 자아' 척도가 KSRI의 남성성, 여성성척도 모두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서 ($r=.62$, $r=.41$, $p<.001$) 양성성 이론의 측면에서 볼 때 비교적 적절한 외부 준거변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이 척도를 이용하여 KSRI의 타당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양성적인 사람들이 성전행화된 성격을 지닌 사람이나 미분화된 성격을 지닌 사람들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성역할 유형집단별로 준거변인에 대한 ANOVA를 실

〈표 6〉 성역할 유형별 자아존중감의 차이

성역할 유형	자아존중감	F
양성적 집단	68.88	26.09**
남성적 집단	65.39	
여성적 집단	60.16	
미분화 집단	54.97	

시하였다. 그 결과와 각 집단의 평균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자아존중감은 성역할 유형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양성적 집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남성적, 여성적, 미분화의 순으로 나타나서 KSRI의 타당도를 1차적으로 입증하였다. 어떤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e 검사를 실시해 본 결과, 양성적 집단이 여성적 및 미분화 집단보다 높고 남성적 집단과 여성적 집단이 미분화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p < .05$) 양성적 집단과 남성적 집단 사이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이론에서 예측한 바대로 결과가 산출되었다. KSRI의 타당도는 앞으로 이 검사가 측정해낸 성역할 성격특성을 다양한 분야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들과 연관지어 살펴봄으로써 다면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긍정적 반응경향 (Social desirability response set)

KSRI에서는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가 둘 다 중앙치보다 높으면 양성적인 것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남성성 문항과 여성성 문항 모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긍정적인 특성들로 대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을 긍정적으로 나타내려는 경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양쪽에서 다 높은 점수를 받아서 양성적인 것으로 분류될 우려가 있다. 이 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 그리고 긍정적 반응경향을 나타내는 긍정성 점수간의 상관관계를 내어보았다.

남성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모두 긍정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r = .48$, $r = .48$, $p < .001$), 여성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여성성만이 긍정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r = .52$, $p < .001$). 남성 응답자들에게서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모두 긍정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짐으로써

여성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달리 남성성과 여성성 점수 간에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검출되었다 ($r = .39$, $p < .01$). 남성 응답자들의 경우에 상관관계가 많이 나타난 것이 남성이 여성보다 더 긍정적 반응경향이 높기 때문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녀 응답자들의 긍정성 점수를 비교해 보았다. T-검증 결과, 남성의 평균은 4.98, 여성의 평균은 4.70 으로서 남성들이 더 자신을 긍정적으로 나타내는 경향이 있음이 밝혀졌다 ($t = 2.73$, $p < .05$).

남녀가 모두 응답자나 피험자로 참여하는 연구에서 KSRI를 사용할 때, 긍정적 반응경향으로 인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양성적 유형으로 많이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남녀의 자료를 따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긍정적 반응경향의 영향을 참작하는 방법을 써볼 수 있다. 이러한 남성의 긍정적 반응경향이 이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 집단의 특징인지 혹은 남성들의 일반적인 특징인지는 후속연구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며, 대학생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자아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현상은 그 자체로서 재미있는 발견이고 현재로서는 이 현상이 검사의 타당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규준

KSRI 를 실시한 대상집단의 성역할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남녀 응답자별로 남성성, 여성성, 긍정성 점수의 평균을 내고, 각 점수에서 남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7〉 과 같다.

〈표 7〉 남성성, 여성성, 긍정성의 평균점수에서의 성차이

		남성	여성	t
남성성	평균	4.67	3.80	5.86**
	표준편차	.92	.84	
여성성	평균	4.75	4.55	1.55
	표준편차	.81	.71	
긍정성	평균	4.98	4.70	2.73**
	표준편차	.62	.60	

남녀의 다른 사회화 과정으로 미루어 예상되는 바대로 남성성의 경우에는 남성 응답자들이 여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여성성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을 뿐더러 여성이 남성보다 오히려 약간 낮은 점수를 받아서 예상과는 반대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남성 응답자들이 긍정적 반응경향이 높은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현상은 이전의 연구에서도 남자 대학생 집단에서 발견된 적이 있다(정진경, 1989a). 참고로 다른 집단에서 발견된 결과를 살펴보면 저소득층 기혼여성들의 경우, 남성성은 낮고(평균=3.86) 여성성은 높아서(평균=5.04) 대학생 집단에 비하여 매우 고정관념적으로 성전형화된 성격을 보였다(정진경, 1989b).

여기에 보고된 평균과 분류 등은 이 조사의 대상자 집단이 수가 적고 우리나라 연구의 대표적 표본이 아니어서 임시적인 기준이므로, 앞으로의 연구들에서 자료가 보완되어 전국적 기준이 작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맺는말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성역할 고정관념들을 밝혀내어 그를 기초로 우리 문화에 적합한 성역할 검사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작성된 한국 성역할 검사(KSRI)는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고 타당도도 1차적으로는 입증되었다. 그러나 남성 응답자들이 여성에 비해 긍정적 반응경향이 높아서 성역할 유형의 분류에서 양성적인 것으로 대거 분류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몇가지의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KSRI의 문항 중에 선정기준은 통과했을지라도 적절하지 않은 문항들이 일부있을 가능성이 있고, (2)대학생이라는 대상자 집단의 특성이 (예: 남학생의 긍정적 반응경향 등) 점수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으며, (3)표본의 수가 적고 특성이 다양하지 못하여 한국 사회의 대표적 표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몇가지 문제를 안고있더라도 KSRI는 지금까지 사용되어오던 BSRI나 기타 외국의 성역할 검사의 번역판에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기초로 작성되었다는 가장 근본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

다. 또한 남성성과 여성성을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정하는 기존의 성역할 척도들과는 달리 최근 발전하고 있는 양성성 이론의 시각에 준하여 개발된 검사이므로 이 분야의 새로운 이론들과 부합한다는 점도 강점으로 들 수 있다.

앞으로의 후속 연구들에서는 우리나라의 여러 집단을 대상으로 KSRI를 실시해서 점수를 비교해보고, 또한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검증함으로써 이 검사의 각 문항들과 척도들이 지니는 속성을 밝혀내고 수정, 보완해나가는 작업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영채 (1984). 400개 성격특성 형용사의 심상가와 호오가.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총, 제 2집, 17-32.
- 김영희 (1988). 한국형 성역할검사(Korean Sex Role Inventory) 개발연구. 아세아여성연구, 27, 153-182.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 여성문제 연구소.
- 김재은과 이광자 (1985). 자아실현검사 실시요강. 중앙적성 출판사.
- 박선영 (1985). 대학생의 성역할 관념에 대한 일 연구: 자기와 타인의 지각 불일치 및 심리적 적응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심리학과 석사논문.
- 정원식 (1965). 자아개념검사법 요강. 코리안 테스트링 센터.
- 정진경 (1987). 성역할 연구의 양성적 시각. 한국여성학, 제 3집, 132-160.
- 정진경 (1989a). 한국의 성역할 고정관념 실태조사 및 성역할 측정검사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보고서.
- 정진경 (1989b). 성역할 고정관념 및 특성이 기혼여성의 취업에 따르는 적응문제에 미치는 영향: 저소득층의 경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989, 4, 2, 169-184.
-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 Bem, S. L. (1977). On the utility of alternative

- procedures for assessing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5, 196-205.
- Berzins, J. I., Welling, M. A., and Wetter, R. E. (1978). A new measure of psychological androgyny based on the Personality Research Form.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 126-138.
- Brislin, R. W. (1980). Translation and content analysis of oral and written material. In H. C. Triandis and J. W. Berry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2), 389-444. Boston: Allyn and Bacon, Inc.
- Cook, E. P. (1985). *Psychological androgyny*. N. Y.: Pergamon Press.
- Gough, H. G. (1964). *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 Manual* Palo Alto, Calif.: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Hathaway, S. R., and McKinley, J. C. (1943). *The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N. Y.: Psychological Corporation.
- Heilbrun, A. B. (1976). Measurement of masculine and feminine sex roles as independent dimens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4, 183-190.
- Kaplan, A. G., and Sedney, M. A. (1980). *Psychology and sex roles: An androgynous perspective*. Boston: Little, Brown.
- Spence, J. T., Helmreich, R., and Stapp, J. (1974). The Personal Attributes Questionnaire: A measure of sex role stereotypes and masculinity-femininit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4, 43. (MS No. 617).
- Strong, E. K. (1943). *Vocational interests of men and women*.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 Wilson, F. R., and Cook, E. P. (1984). Concurrent validity of four androgyny instruments. *Sex Roles*, 11, 813-837.

Korean Sex Role Inventory (KSRI)

Jean-Kyung Chu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ex role research in Korea has been hindered by the absence of a sex role inventory which is based on the sex role stereotypes of the Korean society. In this study, a Korean Sex Role Inventory (KSRI) was constructed according to the theory and methods of the androgynous perspective. In a preliminary study, 188 judges rated the desirability of 452 personality characteristics for males and females in Korean society. Following Bem's (1974) procedure for item selection, 20 items each were selected for the masculinity, femininity, and social desirability scales. When administered to 140 college students, the inventory showed high reliabilities for all three scales ranging from .75 to .91, and reasonable degree of external validity with self-esteem as the criterion variable. For national norms, it is necessary to collect more data. Compared to the translated versions of foreign sex role inventories or the masculinity-femininity scales of the traditional personality tests which do not correspond with androgyny theory, KSRI will be a useful instrument for sex role research in Korea.